

인도네시아의 화교와 화교자본: 수하르또집권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신 윤 환

1966년 수하르또 집권 이후 25여년간 인도네시아 화교들은 그들의 이주사에 있어 가장 선반석이고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동화의 정도와 방언집단별로 나뉘어져 있으면서도 보학사회와 뚜렷이 구별되던 화교들은 성체성의 약화와 위기에 당면하게 된 것이다. 수하르또 체제 등장 이전에 화교들이 전지하던 관습, 종교, 언어, 이름 같은 사라지거나 새로운 것들로 대체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전통적인 문화적 차이 대신에 경제적, 기주지역적 차이가 화교사회를 이끌고 있다.

수하르또 체제하에서 화교들은 정치적으로는 천자한 배세를, 경제적으로는 급속한 성장을 동시에 경험하는 모순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모든 정치활동은 개별적, 비공식적 수준으로 제한되고 어떠한 집단적, 공식적 활동도 억제되었다. 반면 화교들의 경제적 지위는 크게 상승하였다. 지난 20여년간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온 주역이면서, 최대의 수혜자가 화교들이었다. 이들은 전통적인 중간상인, 고리대금업자, 소규모 제조업자, 투기꾼 등의 위치와 규모를 뛰어나 현대적인 산업, 상업, 금융자본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정체성의 위기, 탄정치화, 경제적 특권총화로 요약될 수 있는 보순된 변화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이 연구는 세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바, 국제정치·경제적 변화, 국가와 정치권력, 토착사회의 압력 및 토착사회의 대응이 그것이다. 수하르또에 의해 주도된 세계자본주의체제로의 변입, 1970년대의 원유가 폭등과 1980년대의 폭락, 중국과의 난교, 반공산주의와 반기진회교주의를 표방하는 군사독재정권의 출현과 안정,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시민사회의 요구와 압력에 대응하는 국가의 다양인 정당화 전략 등을 세가지 요인으로 둘어 분석한다. 여기서 국가는 화교사회의 급진적 변화를 초래한 가장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변수이며, 다른 요인들은 국가를 통해 매개되고 있다고 본다. 이 연구는 이러한 요인들의 일방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체계화하여 하나의 분석모형을 구축해 볼으로써, 화교연구의 이론화 작업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자 한다.

I.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중요성

이 연구는 현대 인도네시아 ‘화교’사회의 변화를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¹ 화교가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제 분야에서 미치고 있는 영향이나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여 화교에 대한 이해없이 인도네시아의 정치와 사회를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 이 글은 교육·부의 지역연구 지원사업에 따른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것임.

¹ 이 논문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비평을 해 준 강원대학교 박사명 교수와 서울대학교 오명석 박사에게 감사의 표를 한다.

불가능하다. 총인구의 3퍼센트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화교들이 인도네시아 역사를 통하여 끼쳐 온 영향과 현재에도 행사하고 있는 영향력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적·간접적으로 그리고 긍·부정적으로 실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화교의 중요성은 특히 경제분야에서 두드러지는 데, 화교들이 보유한 풍부한 자본과 타월한 상술은 오늘날 인도네시아 경제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데 관건이 되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화교의 존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데, 50년 정도의 역사밖에 가지지 못한 인도네시아가 강력한 국민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은 화교들의 경제지배에 대한 정서적·정치적 반응의 결과라는 역설이 성립한다. 즉 화교-비화교의 구분은 인도네시아 사회의 주된 균열선을 형성하여, 화교를 제외한 다른 종족들로 하여금, 각기 다양한 언어, 전통, 문화, 역사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토착인(prabumi 또는 orang asli)으로서 응집력과 정체성을 갖게 한 것이다. 동남아에서 중국인의 도래사는 이 지역의 역사와 함께 하는 만큼, 화교들의 영향력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형성과정을 제약하여 왔고, 문화 전반에도 깊이 각인되어 있다 (가장 저명한 연구가로 Wang Gungwu가 있으며 Wang[1991]을 보라).

이렇게 중요한 의미와 위치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 화교에 관한 연구는 불행히도 최근 2,30년간 극도로 침체해 있다. 수하르또가 집권한 1960년대 중반 이후, 화교연구는 종족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 권위주의 정권의 통제와 인도네시아 전문가들의 수작 감소로 말미암아 새로운 연구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퇴조하여 버렸다. 특히 이 기간은 수하르또의 신질서체제가 강압적인 반화교문화정책을 행사한 시기이면서도, 눈부신 경제성장속에서 화교들의 경제적 지위는 급상승한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화교사회는 중대한 변화를 경험했음에 틀림이 없고, 또 그 변화는 여러 측면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연구자료의 부족과 방법론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화교연구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데 의미를 두고 이 연구에 착수하였다.

이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화교사회의 변화를 조사하여 ‘기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변화의 요인을 찾아 보는 것이다. 첫번째 과제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신질서체제하에서 화교들은 정치적으로 크게 약화된 반면 경제적으로는 급속히 성장하였다는 일견 모순된 현상을 그려 내고 있다. 이 연구의 두번째 과제는 이러한 모순된 현상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필자는 그 주된 요인을 인도네시아 ‘국가’의 이해관계와 그 정책에서 찾을 수 있고, 나아가 국가의 정책은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변화와 토착사회의 요구에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을 펴고자 한다. 기술과 분석을 연결하는 설명들과 이것의 독창성은 제2절에서 밝힐 것이다.

이 논문은 화교사회의 변화에 대한 기술과 분석을 본론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빼뜨릴 수 없는 선행작업이 있다. 그것은 화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단순히 연구절차상 한 단계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또 연구수행에 큰 난제를 던져주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II. 개념과 분석틀

1. 화교 정의의 문제

‘화교’(ethnic Chinese)란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통념만큼 간단하지 않다.² 혈통, 이름, 언어, 문화, 자기인식(self-perception), 그 어느 것도 동남아 화교를 구분하는 척도로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특히 이 연구는, 동남아 인접국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빠른 인도네시아의 화교와 이들의 최근 변화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유럽인들이 동남아에 첫발을 내딛던 16세기 이전에도 중국인들은 이미 오랫동안 주요 항구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고 있었다는 기록이 중국의 사서나 유럽인들의 여행기에 수없이 등장한다. 19세기 말엽 이전에 이주해 왔던 중국인들은 대개 남자들에 한정되어 있었던 까닭에 현지여자들과 혼인하였고 이들의 후예들은 혼혈중국인으로서 상호간의 혼인과 독자적인 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하나의 종족집단으로 발전하게 된다(Skinner, 1963). 흔히 인도네시아의 빠라나칸(peranakan), 말레이시아의 바바(Baba), 필리핀의 베스띠조(Mestizo), 태국의 룩진(Lukjin), 캄보디아의 메띠(Meti), 베트남의 민후옹(Minh-huong)으로 불리는 자들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한다(Hcidhues, 1974: chap. 2). 이미 수세대를 거쳐 살아 온 이들 속에 흐르는 중국인의 피는 지극히 희소하고, 중국어 대신 현지어를 사용하는 중국인들이 대부분이며, 중국인의 고유한 문화나 전통조차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된 집단이다. 따라서 혈통, 언어, 문화로서 화교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바섬의 빠라나칸 집단은 적어도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완전히 동화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이질적인 것도 아닌 독특한 문화집단을 형성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중국인이라는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있던 집단이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수하로또 정권이 강압적인 동화정책을 쓰기 이전의 인도네시아에서는 순수 중국인(totok)은 물론이고 부계로 중국인 혈통을 계승한 혼혈인으로서 스스로를 중국인(orang Tionghoa 혹은 orang Cina)으로 인정하고 있던 자까지 화교에 포함시키는 데 그리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³ 최소한 이를 화교들은 부계(父系) 혈

2 이 글에서 사용한 ‘화교’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언설명이 필요하다. 탈식민지화 이후, 동남아거주 중국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명칭에 매우 민감하였고, 11 결과 거주국가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화인’(華人), ‘화예’(華裔), ‘화족’(華族) 등으로 부릅으로써, 중국국적소지자들을 뜻하는 ‘화교’(華僑)나 ‘중국인’(中國人)과 구분하고 있다. 동소평의 등장이후 중국정부도 이러한 명칭 구분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화인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는 생소한 까닭에 국적여부에 관계없이 해외거주 중국인들을 모두 화교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분명 있으므로 우리 학계도 명칭분체를 논의하여 어떻게 명명할 것인지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Suryadinata(1985: 1-5)를 참조하라.

3 인도네시아의 중국인들은 orang Tionghoa 또는 orang Cina라고 불리워 지는 데, 후자속에는 멀시의

통, 중국어 내지는 “중국인 말레이어”(McLay Tionghoa; Chinese Malay)의 사용, 중국고유의 관습의 부분적 유지나 독특한 혼합문화의 형성, 중국인이라는 자기규정, 특히 중국성(姓)의 사용 등에서 화교의 정체성이 비교적 명확히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Skinner, 1963:97).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기인 수하르또 집권 이후 시기에 화교를 명확히 정의하고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게 되었다. 제3절에서 기술하는 바대로 수하르또정권이 화교집단에 가한 가혹한 정치적 탄압과 문화차별로 인하여 화교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현재는 무엇이 인도네시아의 화교를 규정지우며 이들에게 중국적인 그 무엇이 남아 있는지 매우 불명확하다. 지난 30년간의 변화는 화교들을 정체성(Chinese identity)의 위기라는 극심한 혼란속으로 몰아 넣어 버린 것이다. 화교사회는 내부적으로는 급속한 이질화 과정을 겪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토착사회에 꾸준히 동화되고 있다. 수하르또정권은 화교특수의 조직과 집회를 해산·금지하거나 비공식화함으로써 화교사회를 여러 갈래로 과편화해 버렸고, 중국문화발살정책을 30년 가까이 폼으로써 중국적 전통과 언어를 빼앗아가고 있다. 상층부화교들은 표준중국어와 중국어 방언을, 외방도서의 화교 소상인, 농민, 노동자들은 중국어방언과 중국인 말레이어를, 자바의 빠라나깐 화교들은 자바어와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한다. 이들의 집단거주지역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중국적 종교는 회교나 기독교등으로 대체되고 있고, 중국인의 고유관습은 화교들의 생활속에서 사라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화교들은 중국식 이름을 포기하고 인도네시아식 이름으로 ‘창씨개명’해 버려 중국인들을 판별해 낸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협통, 언어, 문화, 이름 어느 하나만으로 화교를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신질서체제하에서는 어떤 척도가 가장 타당할까? 군부의 주장처럼 토착인(prabumi)-비토착인(nonprabumi 즉 화교)의 구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고 유용하지도 않는 것인가? (Awanohara, 1984:27). 분명 그렇지는 않다. 토착인의 인식속에서도 화교의 자의식속에서도 분명 화교는 존재하고(Prijono, 1986: chap. 3), 화교문제는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정치·사회·경제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의 자기인식(self-perception)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자기인식은 자기규정(self-identification)과는 구분해야 한다. 여기서 자기인식이라는 말은 자신의 선조가 중국인이었음을 알고 있다는 뜻하지, 스스로가 화교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화교를 정당한 소수민족 집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 정권의 동화정책의 결과 대부분의 화교들은 자신을 인도네시아인으로 생각하지 화교(WNI keturunan Cina) 또는 중국인(Orang Tionghoa)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Prijono, 1986:16).

그렇다면, 화교임을 나타내는 또는 판별할 수 있는 지표(indicator)는 무엇이 되어야

뜻이 넘겨있어 양자사이에는 이간의 차이가 있다. 수하르또 정권은 의도적으로 전자의 사용을 억제하고 후자의 사용을 권장하였다. 그 결과,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중국인 자신들도 별 모멸감없이 후자를 사용하는 듯하다.

할까? 그것은 앞에서 든 어떤 것으로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화교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면서 일관된 지표를 생각하기가 힘들다. 결국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관적 기준에 어느정도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그 주관적 기준의 객관적 근거는 중국관습이나 과거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적정책에 따라 부계혈통에 두는 것이 가장 사실에 가까울 것 같다. 수하르또성권은 화교들의 주민등록증(kartu tanda penduduk)에 고유숫자를 삽입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교들을 다방면으로 차별하여 왔다. 그 고유숫자는 아버지가 중국인인 경우에 부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 정부는 화교판별의 기준을 결국 부계혈통에 두고 있었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 화교는 수하르또 집권 이전 화교로 정의되었던 자들과 이들의 후손들로서 자신이 중국인 부계혈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자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앞에서 든 화교사회의 내부적 이질화, 토착사회에의 급속한 통합과 농화, 중국인 거주지역의 분산, 통혼, 개명 등으로 화교를 파악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필자가 이하에서 행할 분석의 보편성과 타당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둔다.

인도네시아 화교에 관한 인구학적 통계는 모두 부정확하다. 독립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화교문제의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화교에 관한 인구조사와 연구를 금지한 결과 새로운 통계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대개의 화교연구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통계수치들은 1930년 네덜란드령 인도 정부의 센서스와 1950년대 개인적인 특정지역 표본조사를 근거로 하여 추정한 것들이다. 특히 신질서체제하에서는 화교에 관한 인구학적 통계는 전무하다. 여기에서는 매우 오래된 통계이기는 하지만 참고로 몇가지만 제시해 둔다.

총인구에서 화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개 2.5%에서 3% 사이로 추정된다. <표 1>은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로 4백5십만정도로 보고 있고 만약 3%로 본다면 1993년 현재 6백

<표 1> 인도네시아의 화교인구의 변화

(단위: 천명)

연도	화교인구	총인구	비율
1905	563	37,717	1.49
1920	809	49,350	1.64
1930	1,233	60,728	2.03
1956	2,200	91,211*	2.41
1961	2,450	97,085	2.52
1974	3,250	129,120	2.52
1990**	4,484	179,379	2.52

자료: Purcell, 1965: 386; Furnivall, 1967: 347, 408; McVey, 1963: 14-15; Wu and Wu, 1980: 133 (이상 Limlingan, 1986: 33에서 재인용); Biro Pusat Statistik, 1992: 39.

주: * 1956년 총인구는 1930년과 1961년 수치에서 추정한 것임.

** 1990년 수치들은 화교구성비를 고정된 것으로 보고 1990년 센서스인구통계에서 추정한 것임.

만 가까이 유팔할 수도 있다. 지역별 분포를 추정한 연구를 보면 1960년을 전후하여 자바에 50.2%가 거주하고 있고 수마트라에 28.2%, 칼리만딴에 15.1%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Skinner, 1963:99-100). 인도네시아 화교들도 다른 동남아 화교들과 마찬가지로 대다수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지만, 농업노동자나 광부로 유입된 이주사를 반영하듯 과거 농촌이나 광산촌이었던 지역에도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다. 서칼리만딴주, 벌리뚱섬, 방까섬, 리아우주 등에는 해당지역 인구의 20-30%가 화교들이다 (Skinner, 1963:101).

화교의 집단별 구성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더욱 힘들다. 이 연구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독립인도네시아에서 화교들은 토착사회에 동화되고 내부적으로 이질화되어 정체성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제시하는 추정치들은 수하르또체제 하에서는 특히 무의미해지고 있다. 우선 똑과 빠라나깐의 구성은 그 개념과 경계가 불분명하여 알기가 어렵다. 어떤 연구들은 화교의 출생지가 인도네시아인가 아니면 외국—대부분의 경우는 중국—인가에 따라 양자를 구분하여 1950년 현재 화교 총인구의 30%가 똑이고 그 비율은 일년에 1%씩 그 비율이 줄어든다고 주장하였다 (Willmott, 1961: 68). 그러나 이러한 구분과 추정은 국내출생들도 상당수가 순수중국혈통을 이어받고 있고, 또 이 계산에 따르면 현재는 외국출생이 전혀 없는 셈이 되어 상식에 어긋난다. 또 다른 표본조사에 의한 연구는 1957년 현재 외국출생 화교를 40%정도로 다소 높게 잡고 있다 (Skinner, 1963:111). 여하튼 인도네시아 화교는 절대다수가 빠라나깐이고 똑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한편 종족별 또는 출신지역별 구성은 호키엔(40%), 학카(16%), 칸톤(10%), 테오츄(7%) 등의 순으로 호키엔이 가장 큰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상세한 논의는 이하 3절을 볼 것).

2. 기존연구비판과 연구의 분석틀

이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연구주제에서 뿐만아니라 시각과 분석틀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우선 화교를 인도네시아사회의 외부적 요소로 보는 일반적인 관점을 거부한다. 이 관점은 인도네시아의 화교들을 항상 “중국인”(Indonesian Chinese)으로 간주하였으며, 중국과 관련시켜 화교문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화교들을 염연한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보아 ‘중국계 인도네시아인’(Chinese Indonesians)으로 취급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고 또 화교문제를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식민통치시대에는 화교들이 “외국동양인”(Foreign Orientals)이라고 하는, “원주민”(natives)들과 구분되는 범주로 분류되었고, “구질서”(Orde Lama)시대—수하르또이전의 의회민주주의 및 교도민주주의 시기를 지금 이렇게 부른다—에는 외국국적을 소유하고, 중국적으로는 중국으로 귀향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중국인이면 영원한 중국인”(once Chinese, forever Chinese)이라는 말이 통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하르또 집권 이후 대부분의 화교들은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하였고, 점차적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화교들을 토착인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외부인들로 취급하는 화

교연구자 대부분의 입장과 화교자본가들을 국내자본가로 보지 않는 시각들은(Robison, 1978; Yoshihara, 1988) 과거 식민사관적인 복합사회론(Furnivall, 1967:446이하)을 받아 들인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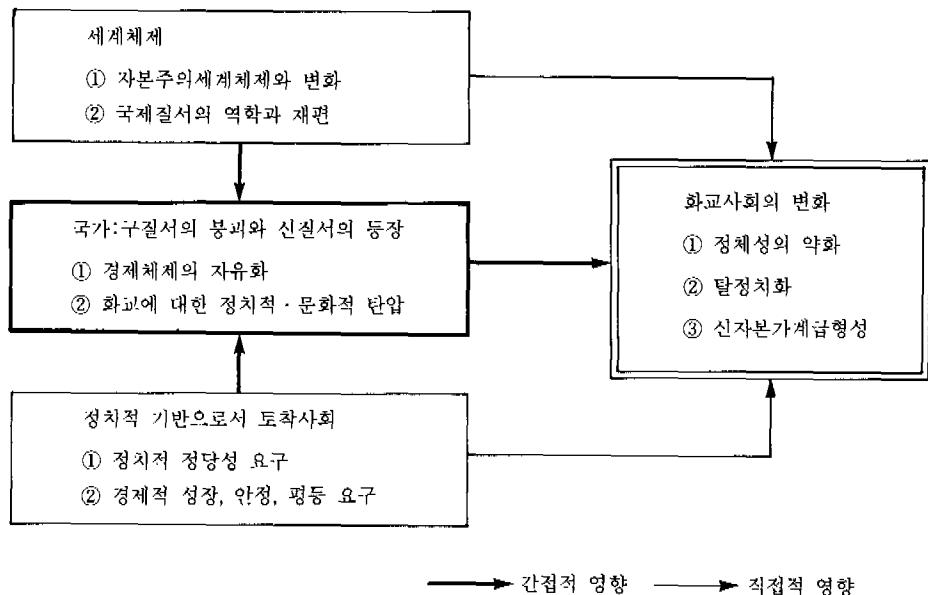
둘째로, 화교자본가의 형성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화교들의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한편으로는 화교들의 경제적 성공이나 한계를 화교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강점, 즉 중국문화, 전통, 관습 등이나 화교들의 초국 가직 상업적인 연결망에서 그 요인을 찾았다(Williams, 1952; Limlingan, 1986; Clad, 1989; Redding, 1990). 반면 역사적인 접근을 취하는 학자들은 식민통치의 유산으로 보아, 식민지 통치 구조가 창출해 낸 부산물의 연속으로 보았다(Purcell, 1965). 이들은 식민지배 체제가 통치의 필요성에서 화교사회를 계토(ghetto)화하여 경제생활에 집착하게 하고, 이를 식민주의자들과 토착인 사이를 매개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경향은 화교를 식민주의자나 독립인도네시아 정치권력의 통치수단으로 단순하게 과아하여 화교를 주체성을 상실한 객체로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인도네시아의 화교는 복합적인 요인의 산물이다. 여러 요인을 고려함이 없이 일면만을 강조해서는 화교를 올바르게 분석해 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복수의 요인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복합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을 하나의 분석틀로 묶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수하르또 집권기 동안의 화교사회, 무엇보다도 화교자본가들의 변화이다. 그것은 1960년대 말의 화교사회 모습에서 1990년대 초반의 화교사회 모습까지 나타난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그 변화를 단순히 “묘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요인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불행히도 과학적 설명을 위한 실험도 비교분석도 가능하지 않은 단일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국 여기서 제시하는 분석틀은 어디까지나 발견적인(heuristic) 시도에 불과하고 그런만큼 충분히 경제적(parsimonious)이지 못한 틀이다. 다만 매우 다른 환경속에서 진행되었던 유사한 사례들을 어느정도 참고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웃 동남아국가들, 특히 태국과 필리핀 화교들의 경험이 선별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수하르또 집권기 동안의 화교사회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여기서 정치경제학적인 접근이란 종합적인 접근법으로서 세계체제, 국가, 토착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대한 화교사회의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대응으로 화교사회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세계체제-국가-사회구조를 관련지어 생각하는 종합적인 접근법은 최근 다양한 정치·사회변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널리 사용하는 분석틀이다(Skocpol, 1979; Evans, 1979; O'Donnell, 1973; Gourevitch, 1985; Rogowski, 1989; Tilly 1990). 강조점을 두는 특정 요인의 선정이나 요인들의 개념화에 있어서 상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혁명, 권위주의의 등장, 재민주화, 경제발전, 대외경제 정책작성, 정책연합형성, 민족국가의 기원 등을 설명하기 위한 최근의 시도들은 대개 이와같은 종합적인 접근법으로 수렴하고 있는 듯하다. 인도네시아 화교 연구에 이 분석틀

〈그림 1〉 학교사회의 변화와 그 요인



을 원용하기 위해서는 개념화와 수정이 요구되는 데, 세계체제, 국가, 사회구조 개념을 추상화수준을 낮춰 명확한 내포를 가진 개념으로 구체화하고, 특히 사회구조에 대해서는 토착사회와 화교사회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것이다. 세계체제, 국가, 토착사회와 화교사회의 분리에 대한 개념화는 본론에서 시도된다.

세계체제, 국가, 사회라는 세요소가 같은 힘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적어도 지난 25년간의 변화가 보여주는 바는 국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배권력을 장악한 군부·관료집단이 화교사회의 변화에 중심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수하르또의 지배권력은 구질서하의 내적 모순과 갈등요인을 극복하고자 좀 더 자유주의적이고 개방된 자본주의 체제로 전향하였고 여기에는 상당한 정도의 세계체제로부터의 압력이 작용하였다. 경제체제의 자유화는 화교들에게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에 화교들은 자발적 참여와 토착자본과의 통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다. 화교들은 경제적 자원으로서 지배권력에 봉사하였지만 정치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지배권력의 정치적 기반은 토착사회였고 이들로부터의 칙·간접적인 압력은 국가로 하여금 화교들을 비경제적인 분야에서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만들었다.

30년 가까이 자유주의적 경제의 운용과 화교에 대한 정치적, 문화적 통제를 실행한 결과, 화교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였다. 화교들은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급속히 성장하여 “신자본가” 집단의 주된 요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또 인도네시아의 주된 경제행위의 주체로 등장하여 더 이상 외적 존재가 아닌 국내자본가로서 위치를 굳히게 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정당성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토착사회의 요구와 도전에 직면한 국가의 반화교정치와 문화정책의 결과로, 화교사회는 탈정치화하고 전반적으로는 점진적인 동화를 이룬 반면 화교사회 내부적으로는 이질화가 심화된 것이다. 화교는 ‘정치적인 난장이지만 경제적 기인’(political pygmies and economic giants)으로서 “정치적 배제”的 대가로 “경제적 특권”을 누리는 절름발이 인도네시아 시민이 되었다 (Anderson, 1983:491).

III. 화교사회의 변화와 화교자본의 성장

수하르도의 군부군위주의정권이 수립된 1966년 이래 화교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변화는 세계 이민사에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 변화를 사회, 정치, 경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해 본다.

1. 정치성의 약화

오늘날의 화교사회는 토착사회에 급속히 동화되어 가고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30년 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화교 신세대들은 토착인의 신세대와 마찬가지로 가치관, 교육수준, 생활양식에서 구세대와 큰 차이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토착인과는 달리 얹어, 종교, 인간관계, 국가관 등에서 화교 구세대와 크게 다르다. 수하르도 정부가 억압적인 동화정책을 사용하기 이전의 화교사회는 퍼니발(Furnivall, 1967)이 네덜란드령 인도를 묘사하기 위해 개념화한 “복합사회”(plural society)와 유사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크게는 순수중국인(totok) 또는 중국태생화교(sinkheh: 新客)와 혼혈화교(peranakan) 또는 인도네시아태생화교들로 나뉘어져 있었고, 이 또똑들은 다시 출신지역 또는 사용하는 중국지방어에 따라 흑키엔(福建, Hokkien), 칸톤(廣東, Canton), 학카(客家, Hakka), 태오쥬(潮州, Teochiu), 하이난(海南, Hainan) 등의 하위집단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와 같이 화교 사회의 내부적 균열은 기본적으로 종족주의 또는 지역주의였고, 따라서 경제, 사회, 정치의 제활동도 대체로 이 균열선을 따랐다. 예를 들어 흑키엔들은 대개 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었고, 대체로 부유한 편이었으며, 정치적으로는 좌파성향의 통합파가 많았다. 반면 뼈나간들은 어느정도 토착사회에 동화되어, 중국인 말레이어나 화란어를 사용하였고, 중국고유종교—일반적으로 유, 불, 선, 조상숭배가 융합된 신앙—to 믿는 수가 똑같이 비해 월등히 적었다 (Skinner 1963). 그러나 이러한 귀속적(ascriptive) 균열은 이제 계층에 기반을 둔 경제적 균열로 바뀌고 있다. 즉 귀속집단간의 차이는 줄어드는 반면, 대신 계층간의 차이가 화교사회를 분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수하르도는 집권 직후 화교사회에 칠퇴를 가하였다(Coppel, 1976; Tan, 1991: 116-119). 수하르도는 일부 화교들의 공산당 지원과 중국과의 내통을 이유로 화교사회에 대한 대

대적인 정화작업을 시작으로 화교사회 해체와 문화말살의 포문을 열었다. 공산계 화교들을 학살하거나 투옥하고, 공산당과 연계를 가졌던 “통합파”(integrationist) 화교조직을 강제해산하고 불법화시켰다. 중국어로 교육하던 600여개에 달하는 화교학교를 강제폐쇄 하였으며, 중국어로 된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은 정부발행 일간지 한개—『하리안 인도네시아』(*Harian Indonesia*)—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간조치하였고, 한자가 들어있는 모든 서적에 대해 관금조치는 물론 외국인들에 의한 반입조사 규지하는 ‘분서갱유’(焚書坑儒)를 단행하였다. 주요 도시지역에 형성되어 있던 차이나타운(pecinan)에서 한자간판이나 광고판이 자취를 감추어 한자를 찾아 볼 수 없는 기이한 차이나타운이 되어 버린 것도 이때였다. 중국인들의 종교 및 전통과 관련된 의식과 축제도 가정내에서 사적으로 행하도록 하였다. 모든 공립교육기관에는 화교학생수의 제한을 두어 화교중심의 학교가 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지하였다. 화교학생이 과반수에 이르던 국립인도네시아 대학교에 그 수가 10%미만으로 줄어 들었다.

1965년 10월 이후 두세달에 불과한 짧은 기간 동안 몽아친 대탄압을 통해 화교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미래의 선택에 관해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바로 화교는 정치적 요구를 낭당하게 할 수 있는 토착 소수민족들과 다르다는 교훈이다. 인도네시아 화교들은, 뛰리핀을 제외한 어느 아세안국가보다도 적은 비율의 화교인구, 화교-토착인 간의 엄청난 경제적 격차, 자신들을 네덜란드식민주의의 앞잡이로 보는 토착인의 고정관념, 절대다수가 누슬람인 토착사회와 너무나 이질적인 종교적 태도, 이슬람토착사회의 반공산주의 의식 등을 체험을 통해 직접 확인하게 되었고, 이러한 적대적 환경속에서 화교의 성체성과 전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정치세력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뚜렷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1990년대의 인도네시아 화교사회는 1960년대와 비교해 볼 때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화교들은 전반적으로 토착사회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Greif, 1988). 언어 능력의 상실은 가장 뚜렷한 지표이다. 30대미만의 또똑개 화교들은 중국어를 교육받을 기회를 상실하였고, 쪽카엔, 카톤, 학카, 테오츄 등 중국방언뿐만 아니라 반다린조차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들의 모국어(mother tongue)는 인도네시아어와 인도네시아 지방어로 대체되어 버렸다. 한편 교육받은 뼈라나깐을 부모로 가진 자식들은 부모들이 일상어로 사용하던 화란어 대신 인도네시아어 계통의 말들을 사용한다 (Oetomo, 1984: 455 이하). 화교들은 이름도 인도네시아식 이름으로 개명을 강요당하였으며, 중국인들의 구래의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교, 일련종종 등으로 개종해가고 있다 (Suryadinata, 1988: 70-73). 성체성의 악화는 매우 낭연한 결과인 것이다. 짧은 세대들은 과거처럼 화교만의 배타적인 사회관계속에 놓여 있지 않다. 주거지역, 학교, 직장 등에서 화교들은 토착인들과 더욱 빈번하게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Priyono, 1986: 1-7). 정확한 통계는 찾아 볼 수 있지만, 화교와 토착인들간의 혼인도 간수록 증가하고 있다. 결국, 인도네시아 화교사회는 또똑들의 “뼈라나깐화”(peranakan-isasi), 뼈라나깐들의 토착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Suryadinata, 1988: 120; Shin, 1989: 77).

전반적으로 화교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배타적인 사회적 유대가 붕괴된 결과 대다수의 화교는 토착사회에 동화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계층별 이질화 현상 또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편으로 부유층 똑똑화교들은 재중국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중국화는 인도네시아 화교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중국어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부유층 화교들은 자식들을 싱가포르, 홍콩, 미국, 호주 등지로 유학을 보내고, 이들 새로운 세대의 화교들은 외국에서 재중국화를 경험하고 중국인의 정체성을 재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부모들이 사용하던 방언이 아닌 만다린을 배우고, 부모들의 구복신앙적인 종교가 아닌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고, 구래의 중국인의 상술이나 관습이 아닌 현대경영학을 익힌, 국제화된 화교집단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 하나의 이질적인 집단은 수마뜨라와 깔리만딴 등 광산촌과 농촌지역에 이미 오래 전에 정착했던 빈곤층 화교들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집단을 형성하여 거주하였으며 따라서 고유의 중국방언, 전통, 관습을 나름대로 변형시켜 가며 유지해 왔던 화교들이다. 이들은 신질서의 문화정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던 결과, 여전히 고유한 화교 사회를 지속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동화과정을 겪고 있는 화교사회의 일반적인 추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Heidhues, 1992: 218-226).

2. 탈정치화

정치적인 영역에서 화교사회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다. 수하르토 집권 이전의 화교사회는 정치적으로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화교들은 이념적으로 다양한 정치조직과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중국과의 정치적 접촉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 의회민주주의시기에는 각료로 임명되기도 하고, 의원으로서 의회에서의 활동도 가능하였다. 물론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체제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중국으로 경도하면서 화교들의 경제활동의 자유는 줄어들고 대만과의 연계는 통제를 받게 되기는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정치의 장에서였고 실제적으로는 광범위하게 정치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인도네시아 공산당(PKI)과 밀착되어 있던 인도네시아국민협의회(Baperki)는 동화에 반대하여 통합을 주장하던 화교들의 정치조직으로서 회원, 자금, 영향력의 측면에서 막강하였다.

이로부터 약30년이 흐른 뒤, 화교정치는 인도네시아의 정치무대로부터 완전히 사라졌다 (Coppel, 1983). 탈정치화(depoliticization)란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데, 기존의 화교 정치조직은 해체되고 자생적인 정치활동은 규지되거나 철저히 통제되었으며 화교 각료나 선거직 의원도 신질서체제하에서는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Anderson, 1983). 정부나 여당인 골카르(Golkar)를 통한 공식적 정치과정에의 참여는 개별적인 수준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화교집단으로서 조직적 참여는 그 예가 없다. 화교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약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행정부 관료직도 화교에게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특히 규부는 화교에 대해 매우 폐쇄적이며 민간행정부에서도 화교들은 수가 적고 진급도

제한되어 있다. 화교들이 국가에 소속된 경우는 대개 국영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등 화교들의 전문성이 매우 필요한 비정치적 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화교의 정치적 영향력이 전부하다고 난정할 수는 결코 없다. 정치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비공식적인 참여까지 정치의 외연을 넓히면, 화교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화교들은 비록 화교만의 배타적인 사회단체나 압력단체를 형성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집약해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일반 사회조직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을 위시한 기업가단체들은 화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를 통한 기업가들의 권익옹호는 화교에게 상대적으 이익이 더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MacIntyre, 1990). 특히 1980년대이래 경제자유화조치는 사적 경제부문의 영향력을 크게 신장시켰고, 사적부문은 화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나 (Shin, 1991). 또한 화교들은 토착정치엘리트들과 개인적 유대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 주요 화교재벌들은 후견인(patron)들이 군장성, 고위관료, 정치인들의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화교재벌들이 정실체계(patron-client system)를 통해 염고자 하는 바는 그들의 정치적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특혜, 정책형성 등에의 영향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Robison 1977, 1986; 신윤환, 1993). 대통령 수하르또와 인도네시아 최대 재벌인 럼슈룡과의 관계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Robison, 1982; Shin, 1989: 322-386).

또 하나는 이데올로기적 수준에서의 정치활동이다. 공식적인 통로가 폐쇄되었지만 화교들은 비공식적인 통로나 우회적인 통로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MacIntyre, 1990). 특히 경제정책에서 합리성과 자유주의를 옹호·표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화교들의 경제활동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Shin, 1991). 경제학자와 경영자분야의 다수가 화교들이다. 전략및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화교재벌들이 후원하고 주요연구원들이 화교들로 구성된 연구소로서 한때 인도네시아의 두뇌집단(think tank)이라고 불릴 만큼 정책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었다. 또한 화교들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신문사와 잡지사를 장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최대의 신문인 콤파스(Kompas)와 수아라pedia우난(Suara Pembangunan), 시사주간지인 템포(Tempo), 기타 많은 비지니스잡지들의 소유주들과 편집인은 대개 화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질서하의 화교들은 전반적으로 탈정치화되어있다고 하는 표현이 훨씬 사실에 가깝다. 앞서 논한 화교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화교엘리트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고 그 통로도 비공식적인 정실체계나 개별적인 로비 수준에 제한되어 있다. 한편 대다수의 화교들은, 개인의 자격으로 조직에 가담하여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들 스스로도 정치적 배제를 감수하는 대신 경제적 기회로 보상받는 길을 택하고 있다.

3. '신자본가계급'의 형성

수하르또체제하의 화교사회가 경험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니뭐니해도 자본가집단

으로의 급성장이다. 화교들의 경제적 위치는 19세기 후반 이후 계속 상승하여 인도네시아 사회상층부를 구성하여 왔지만, 신질서하의 화교들의 사회·경제적 성장은 질적인 측면에서 차원을 달리한다. 화교들은 이제 단순히 상층부 '계층'을 구성하는 단계를 넘어 자본가 '계급'의 주된 요소로 성장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Robison, 1986; Shin, 1989).

(1) 화교자본의 축적과 신자본가집단의 출현

신질서 이전 화교들의 경제적 지위는 현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취약했고 또 불안정하였다. 화교들은 경제적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토착인들에 비해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을 뿐이다. 독립이후 수까르노 몰락까지 인도네시아의 경제수준과 다양한 화교차별정책은 화교경제의 취약성과 불안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당시의 인도네시아경제는 로비슨(Robison, 1978)의 표현대로 이해기적인 상업자본주의 단계에 머물고 있었고, 규모, 자본, 기술의 면에서 현대산업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근대적인 인도네시아 경제도 탈식민지화의 정치·사회적 혼란속에서 퇴보를 거듭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화교들은 소·도매상인으로서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일부 기부들도 고리대금업, 토착브로커를 낸 무역업, 수공업수준의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정도였다(Sutter, 1959). 게다가 정치적, 법적 지위의 불안정때문에 화교들은 대규모기업활동으로 사회적 질시를 받을까 두려워 했고, 전통적인 가족경영의 규모를 벗어날 아무런 유인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완전한 독립을 쟁취한 1949년부터 수하르또가 경제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한 1960년대말까지 화교들의 경제적 활동은 갖가지 제약에 당면해야 했다(Anspach, 1969). 의회민주주의 시기(1949-1957)의 내각들은 토착자본을 형성해 보겠다는 목적하에 화교들의 해외무역활동을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도민주주의 체제(1957-1966)는 대단계 화교소유 기업들을 국유화하고 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화교들의 상업활동을 전면 금지하여 수십만의 화교들이 대도시로 이주하거나 중국으로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지속된 반화교경제정책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토착자본을 육성하는 데도 실패하였다. 오히려 화교들의 경제적 지위는 이러한 정책들의 시행결과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보는 편이 옳다. 화교들의 경쟁상대였던 서구 대기업들이 쫓겨나고 국유화되었을 뿐 아니라, 국유화된 기업들을 경영할 능력이 없었던 국가는 화교들에게 경영을 위탁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러한 일련의 반화교경제조치들은 실패를 거듭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국가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다 (Tan, 1967). 교도민주주의의 몰락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군부의 승리가 직접적인 요인이었지만, 더 깊은 곳에는 교도경제의 구조적 제약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수하르또가 집권한 이후 해결해야 했던 가장 급박한 당면과제는 경제적 안정과 복구였다. 수까르노의 "교도경제"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생활수준을 1930년대 대공황때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뜨렸는데, 생산활동이 크게 저하되고 대외무역은 중단되어 생필품은 구하기 힘들게 되고 국민들은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다. 1960년대 초반부터 물가는 급등하여 인플레이션은 수까르노체제의 몰락을 전후하여 500%수준을 넘나들 정도에 이르렀다 (Aradt, 1978:17-18). 수하르또는 경제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외국인투자와 무역체제를 자유화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화교자본을 동원하고 화교들을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시키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수하르또 정부는 1967년 이후 내국인투자법과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화교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화교자본과 외국인자본의 합작투자를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전반에 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화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게 된다 (Booth, 1981).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과 화교자본의 축적을 촉진한 매우 중요한 계기는 외부로부터 유래하였다(Hill, 1988). 선전자본주의 국가들의 차관 및 원조, 외국인 투자, 대외무역이 인도네시아 경제부흥을 인도하였다면, 1970년대를 통하여 세계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석유붐은 인도네시아를 최빈국으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던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원유판매 수입으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고 기간산업을 육성하였다. 그 결과 “국가자본주의”와 “관료자본주의”가 대두·발전하였는데(Robison, 1977), 국영기업과 공공부문의 성장은 외형적인 성장일 뿐이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집단은 화교기업가들과 자바인들이 주축을 이루었던 주요 정치엘리트들의 층근 기업가들이었다. 이들이 인도네시아의 소위 ‘신자본가계급’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Shin, 1989). 이 연구에서 이 집단을 새로운 자본가계급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갖고 있다.

첫째로, 이들이 보유한 자본의 성격이다. 과거 대다수 화교들은 자본의 규모에 있어서 중소규모였고, 기업형태도 가족경영이었으며, 또한 제조업보다는 상업, 사채업 등 이 유회수가 빠르고 투기성이 강한 분야에 주로 투자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화교연구가들은 이들을 자본가로 보기보다는 투기꾼이나 기부정도로 보아 화교들의 산업화에서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다(Williams, 1952; 그리고 Robison의 1970년대 연구[1977: 1978]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25년의 신질서체제는 이들 중 상당수를 현대적 기업인으로 변모시켰다. 이들은 이제 주요 근대적 산업체를 소유·경영하고 있고, 대규모의 자본·기술집약적 산업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농수산물가공이나 목재 등 전통적인 일차산업과 섬유, 신발, 전자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물론이고, 자동차, 제철, 컴퓨터, 통신, 해운, 금융, 보험 등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거나 고도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Shin, 1989:200-320). 1973년에서 1984년까지 인도네시아 제조업이 연 평균 14.9%로 아시아 최고속의 성장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이 변화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Hill, 1988: 10). 이러한 현대적 산업에의 투자로 화교자본가들은 과거와 달리 인도네시아의 경제와 사회를 함께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면, 더 이상 “대리자본가”(ersatz capitalists: Yoshihara, 1988:37-67)로 보기가 힘들다고 하겠다.

둘째로, 신풍 자본가들의 교섭능력의 증대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개별적, 비공식적 통로를 통한 영향력 행사와는 다른 측면에서이다. 지난 30년간 인도네시아는 세계자본

주의체제에 깊숙히 편입되었고,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다른 체제대안을 소진시켰다. 무엇보다도 1980년대 이후 석유위기에 따른 경제개혁과 개방의 가속화로 인도네시아 경제는 국가자본주의적 요소가 줄어들고 시장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블락(Block, 1987)의 주장처럼, 경제체제가 자본주의화될수록, 자본가들은 계급의식형성이나 행동없이도 국가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는 “일반적, 구조적 메카니즘”을 갖게 된다. 사회·정치적 권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화교들이 주축이 된 인도네시아의 자본가들도 인도네시아 자본주의가 성숙하면서 서서히 그 계급적 힘을 자본을 통해 강화시켜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세째로, 화교들에 대한 토착사회의 인식의 변화와 수용가능성의 증대를 들 수 있다. 앞서 논한 화교의 동화와 배타성의 간소로, 화교는 점진적으로 토착사회에 의해 수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자본주의의 심화는 화교들의 경제적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본주의적 혜계모니를 토착사회로 확산시키고 있다. 필자가 다른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관료, 정치인, 언론인, 학자를 포함한 엘리트들은 신질서하에서 끊임없이 자본주의의 정당성, 윤리, 가치를 펴뜨리는 “혜계모니 창출” 작업을 펼쳐 왔다 (Shin, 1991; “혜계모니 창출” 개념은 Saul, 1974을 볼 것). 화교들은 이제 인도네시아를 중진국으로 상승시키는 주역이며, 화교들의 근검정신과 합리적 태도는 사회의 모범이며, 이들의 생산활동은 “국가자산”이라는 주장들이 엘리트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Panglayim, 1984). 자본주의적 윤리가 인도네시아의 사회규범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화교를 주축으로 한 자본가계급의 형성은 결코 세계경제의 변화, 국가의 정책, 정치권력의 후원이라는 환경적 요인만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 여기서 강조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화교들의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사회적 동화에 병행하는 경제적 통합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 문제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2) 경제적 통합

여기서 경제적 통합이란 화교자본가와 토착인들간의 경제협력과 교류가 증대되고 또 유기적으로 결합해 가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단순히 토착사회의 압력이나 국가의 정책에 의한 결과만은 아니며, 환경의 제약속에 놓인 화교자본가들의 자발적 선택이었다. 많은 화교자본가들은 자신들이 경제를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체득하였다. 의회민주주의 시기의 반화교경제정책의 시행이나 수까르노체제의 사회주의적 실험은, 화교문제와 관련시켜 생각하면, 토착정치세력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신생국가가 화교의 독점적 경제지배에 대한 반발로 선택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토착자본가의 농반적 성장없이는 화교자본은 결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못하고 또 후견인인 정치권력이나 국가로서도 큰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화교들은 충분히 인식하게 된 것이다. 토착자본 성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국가와 화교의 후원속에서 토착자본가는 지난 20여년동안 꾸준한 성장을 보여 왔고, 이

는 화교들의 패권적 우세속에 형성된 신자본가계급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화교와 토착인 간의 공조체제는 몇가지 방식으로 형성되어 왔다.

첫째로, 화교와 토착인간의 합작투자를 통한 통합이다. 신질서기에 형성되어 온 화교-토착인 합작기업은 기존의 “알리바바”(Ali-Baba) 또는 “바바알리”(Baba-Ali) 기업들과 달리 비교적 진실한 형태이다. 기존의 관계는 순수한 자본합작이라기 보다는 화교(“Baba”)들이 토착인(“Ali”)들의 법적 자격이나 정치권력에 대한 접근능력을 빌리는 대신 그들에게 일정한 불질적 대가를 지급하는 지대(rent) 창출을 위한 계약이었다. 비록 최근의 합작도 토착인들의 정치적 능력을 중시하거나 순수 화교기업의 이미지를 감소 시켜 보려는 의도가 있기는 하지만,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하고 또 토착인 파트너도 기업이으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합작은 사적 자본가들사이에 한정되지 않고 화교자본가와 국영기업사이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로, 자본가-경영인 관계의 확산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토착인들이 경영능력면에서 전문가를 찾아 보기가 힘들었으나 대학교육과 최근 범성하고 있는 경영대학원의 훈련을 통해 많은 토착경영인이 배출되고 있다. 또한 신질서하에서 등장한 토착자본가들도 화교전문경영인들을 고용하기를 꺼리지 않는다. 경제합리성의 증대와 경쟁메카니즘의 확산으로 경영인들의 정치적 능력보다 전문성이 점차적으로 평가를 받는 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도 화교자본가들은 화교경영인들을 선호하지만, 과거처럼 배타적으로 화교들만을 고용하지 않는다.

세째로, 기업의 대규모화와 노동집약적 산업의 확대로 신자본가들과 토착인노동력간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통합보다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도네시아에서는 실업과 잠재적 실업으로 유휴 노동력이 많고, 노사간의 갈등은 상대적으로 덜 표출되고 있으며, 노동통제는 기업보다 정부에 의해 행해지고 있어(신윤환, 1990), 갈등보다는 협력을 통한 통합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장차 노동계급의 성장에 따라 자본과 노동간의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약 이 계급적 균열위에 종족적 차이까지 중첩된다면 갈등은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예상이 화교들로 하여금 토착인과 자본합작이나 공동경영 관계를 더욱 진작시키는 요인인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1980년경부터 신질서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하청관계구축을 들 수 있다. 공업부가 “양부”(bapak-angkat)제도로 명명한 이 관계는 화교소유 대기업으로 하여금 토착인 소유 중소기업을 하청기업으로 “입양”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이다(Berita Buana, 1979/2/12; Pelita, 1980/12/30; Kwik, 1981). 구체적으로 신용대출, 하청계약, 경영자문,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지원방식이 권장되었다. 지금까지도 자주 언급되는 이 방식은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성공여부도 의심스럽지만 (Sinar Harapan, 1980/10/30), 이것은 화교기업을 보는 시각의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함의가 담겨 있다. 즉 대기업은 주로 화교소유기업이고 중소기업은 수하르또체제하에서는 토착인소유기업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들간의 하청관계의 육성은 바로 화교기업과 토착인기업은 더 이상 적대적인 모순관계가 아니라 상호호혜적인 협조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전언을 담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몇가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화교자본가들이 토착인 경제인들을 보는 시각과, 토착인들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관계에는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경제분야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앞서 서술한 사회적 동화와 아울러 인도네시아 화교자본가들을 “형성중인 자본가계급”(capitalists-in-formation)의 주된 부분으로 성숙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이 개념에 대해서는 Saul, 1984 참조할 것).

IV. 변화의 요인

제2절에서 제시한 분석틀에 따라 화교사회의 변화와 화교자본의 성장 요인을 세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1. 세계체제

여기서 ‘세계체제’란 개념은 “세계체제론”(Wallerstein, 1974)의 이론적 함축을 내포하지 않은 넓은 외연을 가진 의미로 사용한다. 즉 세계체제론의 구조주의적 외부결정론을 거부한다. 세계체제론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유동적 가변성을 지닌 국제질서와 그 변화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동남아시아에서 냉전적 대립, 서방국가들의 경제적 원조와 다국적 기업의 투자, 1970년대 제3세계 자원민족주의의 등장과 유가폭등, 연이어 1980년대의 유가폭락, 1990년을 전후한 사회주의권의 붕괴 등, 다양한 사건들을 포괄한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이 연구의 주제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독립변수로 ‘주어진’(given) 것으로 상정한다.

구질서체제 즉 수까르노의 교도민주주의의 붕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설명되지만, 세계체제와 관련된 것으로는 자본주의세계로부터의 고립과 사회주의화의 실패에 따른 경제적·정치적 불안의 증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수까르노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국시로 삼고—수까르노가 내세운 소위 나사콤(Nasakom)은 민족주의, 이슬람, 공산주의 모두를 융합시킨다는 것이었다—반영·반미반제국주의 외교노선을 표방하고 경제체제를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외국 원조, 투자, 교역의 감소를 초래하였고 국내 생산활동을 위축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켰다 (Tan, 1967). 화교들은 투자 및 상업활동을 중단하거나 관망하였고, 급기야는 10만에 가까운 중국인들이 인도네시아를 떠나기까지 했다.

미국이나 네덜란드의 부추김으로 자바섬 밖의 외방도서들에서 분리주의운동이나 지역반란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정치적으로도 어수선하였다 (Mackie, 1974). 국제적으로는 이리안자야의 인도네시아 편입을 둘러싸고 네덜란드를, 말라야연방독립에 반대하여 영국을, 비난하고 이들의 구식민지 영토에 군사적 위협과 공격을 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까르노는 인도의 네루, 중국의 주은래 등과 비동맹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서방국가들에

게는 문제아로 비춰졌다.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력이 수까르노체제를 직접 몰락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을 가중시켜 그 몰락을 촉진하였음을 분명하다.

수하르또가 실권을 장악한 1966년 이후, 친서방관계의 재개를 표방하자 서방국가들은 인도네시아를 자본주의권에 편입시키고자 공동으로 노력하였다. 13개 서방국가 및 금융 기관들이 모여 인도네시아를 위한 국가간 그룹(IGGI)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연 수십억 불의 원조와 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국제적인 지원에 부응하여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고 외국인투자를 허용·유인하였다. 수하르또 정부의 개방정책은 유가폭락으로 위기를 맞았던 1980년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Hill, 1988). 신질서체제의 수립을 전후하여 일어난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동면하고 있던 화교사회를 자극하였고 화교자본을 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화교기업인들은 외국인 투자가, 주로 일본인들의 합작파트너로서,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국영기업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수하르또 집권기에 인도네시아 경제성장과 이에 수반된 화교자본의 축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세계체제적 요인은 석유가의 급등과 금락이다. 1973-74년과 1978-79년의 두 차례에 걸친 유가폭동은 인도네시아 경제 및 재정 규모를 크게 확대시켜, 화교들에게 더 없는 축적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1990년대의 주요 화교재벌들은 1970년대에 출현, 성장한 재벌들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유가상승이 화교자본의 양적 성장을 도왔다만, 1980년 초반 유가의 폭락은 화교들에게 절적 도약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석유에서 기인하는 재정수입의 감소는 인도네시아 정부로 하여금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의 수출지향적 산업화로 발전전략을 수정하게 하였다. 또한 정부주도의 경제로부터 민간경제주도의 경제로 전환을 꾀한 것도 바로 이러한 국제경제적 맥락이었다. 경제자유화와 구조조정으로 요약되는 경제개혁의 가장 큰 희생자가 공공부문이었다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본 것은 화교소유 기업들이었음을 물론이다.

그러나 화교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변화요인은 국가로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세계체제적 요인은 화교사회를 변화시키고 화교자본을 축적케 하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하였고, 국제경제와 화교자본가를 연결시키는 핵심적 역할은 인도네시아 국가가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2. 국가

이 글에서 국가란 관료기구, 국영기업, 군부, 의회 등 행정력, 경제력, 물리력, 국민통합을 위한 상징화 역할을 소유하거나 독점하는 구체적인 실체로서 규정된다 (Skocpol, 1979; Tilly, 1990). 국가의 성원은 관료제 등 국가기관에 소속된 개인들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합리적 관료제의 발달이 늦은 나라에서는 국가 구성원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 제도적 한계가 불분명하므로, 구성원들이 국가의 권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정치적·불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도 국가의 행위로 본다.

인도네시아 국가는 화교사회를 변화시킨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공산주의자 화교를 학살하고 투옥하였으며, 법적·제도적 권위로서 화교들의 정치조직을 불법화하고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였으나 문화적 권리(?)를 박탈하였다. 군부·관료엘리트들은 화교자본가와 정실관계를 맺어 그들을 정치적으로 보호하고 국가기구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배타적 특혜를 제공하였다. 국가는 자본주의적 경제정책과 특정 발전전략으로 화교자본의 축적을 도왔다. 수하르도 체제가 들어선 후 인도네시아의 화교사회 의 변모는 바로 국가와 정치권력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새로운 통치엘리트들의 이러한 선택은 1960년대 말 국제적, 국내적 환경의 맥락에서 볼 때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들어선 수하르도정권의 목표는 권력유지와 강화에 있었음을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그 목표를 위한 과제는 구정권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는 것이었다. 정치적으로는 민중주의적 동원체제였던 교도민주주의의 정치적 기반을 파괴해야만 했다. 민중을 탈정치화시키고 공산당계 조직들을 해체하고 대중과 정치조직과의 연계를 단절시켜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 운동을 뿌리뽑아야 했다 (Emmerson, 1978). 화교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용적이었던 수까르노와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몰락은 화교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군부정권이 화교에 대해 그렇게 가혹한 탄압을 끼쳤던 이유는 잘 설명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갈등과 투쟁의 결말이었다고 볼 수 있다 (Coppel, 1976; Suryadinata, 1986:113-164). 1965년까지 인도네시아 화교사회는 소수민족의 하나로 남아 인도네시아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통합파”(integrationist)와 무조건 인도네시아 토착사회와 일부로 동화해 들어가야 한다는 “동화파”(assimilationist)로 나뉘어져 있었고, 전자는 친중국 계 좌파들로서 수까르노와 공산당에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동화파”的 주축은 몇세대에 걸쳐 살아온 빠라나칸들이었고 또 이를 중 일부는 수하르도의 집권을 도와준 가톨릭계 학생운동가들이었다. 수하르도는 공산당 세력을 제거해야 했던 만큼, 공산계 화교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통합파의 패배는 화교들이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인도네시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화교들에 대한 문화적 탄압은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된다.

대정변을 야기한 9.30사건에 대한 수하르도 정부의 공식적 설명이 사실이라면, 화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나름대로 정당화될 수 있다. 9.30사건은 1965년 금진좌파 장교들이 국군수뇌부 장성 6명을 납치, 살해하여 시체를 유기한 뒤 혁명평의회의 구성을 선포한 사건으로, 이를 당시 전략에비사령부(Kostrad) 사령관이던 수하르도가 하루만에 수습함으로써 뜻날 권좌에 오르게 된 계기가 되었던 중요한 사건이다 (Crouch, 1988: chap. 4). 이 사건의 주모자들과 공산당의 관련여부에 대해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군부의 공식적 입장은 공산당 지도부가 도모한 계획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인도네시아공산당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던 중국을 비난하여야 마땅한 것이었다. (반면 다수설은 공산당 지도부는 사건이 발발한 후에 지지를 보냈을 뿐 사건음모와 참여는 없었다는 것이다.) 군부는 공식적 견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동결”(freeze; 인도네시아 정부는 단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하고 좌파 화교조직을

불법화하고 화교들을 탄압해야 했다. 화교들의 정치적 개입은 위험시되었고, 향후 화교들의 탄정치화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다소 목적론적인 해석인 측면도 있지만, 화교들의 정치적·문화적 권리의 포기는 자유로운 경제적 활동과 부의 축적을 위한 필요조건이었다. 이는 화교의 입장에서도 그러하지만, 신질서 정치권력의 입장에서도 그러하다. 폐폐화된 경제를 재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화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했고, 또 새로운 집권세력으로 등장한 군부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집단도 화교들이었다. 화교재벌과 군부엘리트들간의 후견-폐후견관계는 신질서 출범을 계기로 더욱 확고해졌다. 그러나 화교들에게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대가로 그들의 정치적 권리는 빼앗아야 했다. 화교들에게 부와 권력을 모두 제공한다는 것은 새롭게 들어선 군부정권의 정당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고, 다른 한편 국가권력에 제한을 가하고 도전할 자율적인 자본가계급을 길러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앤더슨(Anderson, 1983:491)의 설명대로 화교들의 계토화 정책은 “정치권력을 양보할 필요없이 국가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중대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화교의 입장에서도 – 적어도 상충부 화교들에게는 – 이러한 교환은 수용할만 했다. 정치적 개입은 비극을 초래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운 터였고, 자유로운 부의 추구를 위해서라면 정치적 권리는 포기하는 것이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향후 인도네시아 국가는 경제발전을 주도하게 된다. 1970년대 후반에 토착자본가를 지원·육성하면서 화교기업인들에게 제한을 가하는 조치들을 취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토착인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고, 해를 거듭할 수록 개방된 시장경제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신념은 확고해져 갔다 (Shin, 1991: 138-143). 앞서 논한 석유붐이란 외생적 요인과 이에 편승한 수하르또정부의 성장정책은 화교들을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자본가계급으로 성장시켰다. 1980년 불황이후 인도네시아의 경제정책은 더욱 사적 부문에 의존하게 되고, 종족주의적 색채는 급격히 퇴조하여, 화교자본가들의 지위는 공고해지고 정당성을 획득해 가게 되는 것이다.

3. 토착사회

외생적인 요인으로서 세계체제와 내생적인 요인으로서 국가가 화교자본의 축적과 자본가계급형성을 촉진시켰다면, 토착사회는 이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화교사회에 부과된 정치적·문화적인 제약은 바로 이 토착사회로 부터의 압력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도 정당화(legitimation)의 기능을 어느정도 수행해야 한다. 폭력과 억압으로만 다스린다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또 효과적이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후기자본주의국가가 수행하는 정당화 기능이 분배와 복지에 의존한 경제적인 것이라면, 인도네시아와 같은 균대화 과정중의 국가는 비경제적인 자원에도 상당히 의존한다. 정치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자바의 정치문화를 형성한 힌두불교적 신비주의가 상징적 정당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Anderson, 1972; McDonald, 1980). 이런 점에서 화교에

대한 정치적·문화적 억압을 통해 국가가 토착사회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정당성은 국가가 화교들과 경제적으로 결탁함으로써 상실할지도 모르는 정당성을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가에 대한 토착사회의 도전은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경제정의실현을 요구하는 토착인들의 도전이다. 정치권력과 화교의 결탁에 대한 반감은 1970년대 초반 부정부패의 타도를 외치는 지식인 운동과 때로는 폭력적 집단행동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본가내부에서도 화교-토착인,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은 지난 30년 가까이 인도네시아 경제가 이룩한 급속한 성장의 확산—"성과에 의한 정당화" (performance legitimization) —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덮어졌다 (Liddle, 1987).

다른 하나는 수하르또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그것은 화교와 외세에 대한 신질서체제의 보호와 유착에 대한 민족주의자들과 회교도집단의 비판으로 구체화되었다. 신질서기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화교자본과 외국자본을 동원으로 가능했고, 정부는 좀더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정책으로 이를 지원했으며, 그 결과로 화교들은 자본가로 부상했다. 화교사회를 반민족적 집단으로 보는 관념에 젖어 있는 토착인들이나 이러한 편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종족주의적 반체제엘리트들은 수하르토체제의 반민족적 정경유착을 공격했다. 수하르또정권은 한편으로는 이러한 요구와 도전을 회교극단주의로 몰아 억눌렀고 다른 한편으로는 화교들에 대한 지원을 비공식적인 차원에 뛰어 둘으로써, 그리고 화교들을 탈정치화하고 화교사회에 대해 문화탄압을 가함으로써 그 비판을 피해갔다.

결국 토착사회는 국가라는 간접적 통로를 통하여 화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무력화시키고 문화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토착사회가 아울러 가하고자 했던 화교들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제한은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축적기능과 정치엘리트들이 필요로 했던 성실체계라는 벽에 부딪쳐 성공을 거둘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V. 전망: 화교의 선택과 화교사회의 미래

인도네시아 화교들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인도네시아 화교의 앞날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는가? 화교에 대한 정치적 배제와 문화적 탄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화교자본의 성장은 지속될 수 있으며, 그 방식과 형태는 어떠할 것인가? 물론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언제나 쉽지 않다. 우연과 외생적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교사회가 보여준 최근의 변화와 인접 동남아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추론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인도네시아의 화교는 장기적으로 토착사회에 점진적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30년 가까이 수하르또체제가 실시한 화교정책의 결과와

주변국인 태국이나 필리핀사회의 경험과의 비교가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점진적 동화론'에 대해서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수하르또체제의 중국문화발살정책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90년 8월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인도네시아내 화교들의 동화를 더디게 하고 심지어는 화교들의 중국민족주의 감정을 되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로 군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 반론은 역사순환론이라는 단순논리에 근거한 추측에 불과하다. 신해혁명이나 중국의 공산화가 인도네시아 화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네덜란드령 인도정부의 분리정책과 교도민주주의체제의 사회주의적 지향이 화교들의 재중국회를 필요로 했거나 허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란식민주의와 독립인도네시아의 화교정책을 되돌아 보면, 화교들의 모든 권리를 완전하게 인정해 주었던 적은 없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전후하여 화교에 대한 문화탄압이 다소 약화되는 기미가 보이는 데, 이것이 '소수민족(suku bangsa)의 하나로서 화교'를 인정하는 정책으로 발전할지 모른다는 추측을 낳게 한다. 최근 외국국적 중국인들에 대해서이지만 중국인학교 설립이 인가되고, 한자사용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었으며, 화교들의 음력설 경축행사가 비교적 대규모로 치루어 지는 등, 변화의 기미가 엿보이기 때문이다(Straits Times, 1990/5/23; 1991/2/8; 1992/2/8). 그러나 화교를 소수민족의 하나로 '공인'할 것이라는 추측은 사회의 다원화와 정치의 민주화가 아직도 요원한 인도네시아의 권위주의 통치하에서는 설부론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의 유화정책은 국내화교들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중국과의 관계개선과 대만으로부터의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적 동기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화교문제에 대한 수하르또정권의 자신감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강해졌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망의 연속선상의 다른 극단에서 제기되는 반론은 인도네시아 사회의 성격상 화교들이 중국적 속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한 토착사회는 결코 화교들을 모든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태국의 불교나 필리핀의 가톨릭과 비교할 때, 이슬람교는 중국의 관습이나 전통에 대해 특히 적대적이라 화교들을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화교 또한 화교문화와 너무나 상충되는 이슬람교를 받아 들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동화론자 중에 가장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하지 유누스 야흐야(Haji Junus Jahja)와 같은 "이슬람개종론자"들의 개종운동이 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이 견해를 어느정도 뒷받침하고 있다 (Suryadinata, 1988:94-99; Tan, 1991: 121-122). 그러나 이 견해는 인도네시아 이슬람교의 특성을 무시한 데서 오는 그릇된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이슬람교는 널리 연구된 바와 같이 외래문화에 포용적인 자바의 힌두·불교적 요소를 가미한 아방안(abangan)의 '부류'(aliran)가 강하고, 특히 군부 등 지배엘리트는 주로 자바출신 아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Geertz, 1960; Crouch, 1988). 또한 수하르또 후계자에 대해서 여러 추측이 난무하지만, 정권의 성격에 관한한 군부정권 내지는 최소한 군부가 지지하는 정권이 들어설 것이라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화교의 동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극단적 동화론자들이나 체제내 강경파들은 인도네시아 화교들이 중국인의 모든 특성을 버리고 기존의 도착종족속으로 흡수되어 들어가는 것만이 동화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난 20여년 동안 시행된 정부의 정책도 완전한 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완전한 동화가 한두세대만에 이루어진 예는 인류의 역사에서 찾아 보기 힘들다. 이 연구에서 전망해 보고자 하는 미래는 가까운 미래다.

억압적인 화교정책과 적대적인 문화환경만으로 화교를 동화시킨다는 것은 적어도 한 두세대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수백년을 살아온 빠라나깐 화교들도 완전히 토착사회에 동화되지 못했다. 대신 그들은 순수중국인과도 토착인과도 다른 독특한 빠라나깐문화를 형성했고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토착문화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기는 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빠라나깐들이 중국의 전통문화를 똑들보다 더 강하게 송상하고 있다 (Skinner, 1963:108).

수하르도 체제하에서 보여주는 화교사회의 변화도 이러한 경향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 즉 화교들은 “중국종교”를 버리면서도 이슬람교로는 개종하지 않고 기독교, 가톨릭, 일련정종 등의 소수종교를 택하고 있다. 또똑의 경우 토착인과의 결혼은 극히 희소하며, 특히 화교여성의 경우 토착인부슬림과의 결혼은 찾아 보기가 매우 힘들다 (Tan, 1991). 상류층 화교들의 경우에는 토착화 대신 국제화를 택함으로써 역시 이질적인 집단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화교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새로운 세대의 화교들이 형성해 가고 있는 문화는 전통적인 중국문화와 달리 토착사회도 관용할 수 있으며 토착사회의 일부도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문화라는 사실이다. 태국이나 필리핀이 보여준 선례도 그러하다. 화교들의 완전한 토착화를 저지할 또 하나의 변수는 언젠가 인도네시아에도 찾아올 정치·사회의 민주화와 다원주의화이다. 이때까지 화교의 정체성이 어떠한 형태로든 변형되어 존립하고 있다면, 화교들은 중국계 인도네시아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화교들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도 비슷한 전망이 가능하다. 수하르도가 집권한 이래 화교들의 어떠한 조직적 정치활동이나 의회활동도 허용되지 않았고 각료나 고위관료로 임명된 화교도 없다. 빠라나깐 화교들이 화교인권운동, 야당활동, 반체제운동을 편 예가 있기는 하나 이는 정부가 허용한 조직을 통해서이거나 개별적인 활동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국가와 토착사회의 화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음을 볼 때, 화교 개인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정부의 태도가 조금씩 관용적으로 변하고 있다.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사업가인 꾸익 끼안기(Kwik Kian Gie)는 1987년 총선에서 제2야당인 인도네시아민주당(PDI) 후보로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맹활약을 한 예도 있다(*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87/4/23). 그렇지만 화교들의 조직적 정치참여—동원이 아닌—는 상당기간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화교들 또한 이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화교들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는 의회민주주의시기에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차별정책이나 교도민주주의시기에 시행되었던 국유화나 사회주의화와 같은 극단적인 정책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과거의 차별 내지는 탄압정책이 모두 실패한 데서 국가가 얻은 교훈 때문이다. 그 정책들은 비단 화교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착자본을 육성하는 데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 넣었다.

둘째, 수하르토 집권 이후, 인도네시아는 세계자본주의체제에 깊이 편입되어 버렸고, 화교들은 자본가로서 인도네시아 경제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으로 굳게 자리잡았다. 이제는 경제적 혼란없이 화교자본을 억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세째, 수하르토 집권 이후 진행된 화교들의 동화 및 통합은 화교들에 대한 토착사회 의 인식을 변화시켜, 화교들의 경제적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으로 옮겨가게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화교기업과 토착기업간에 합작이 늘어나고 화교들과 토착인들의 상호 고용이 증대하고 있는 경향은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잘 반영한다.

네째로, 최근 국제질서와 세계체제의 변화도 화교들의 지위를 강화시켜 주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개방경제의 추세, 동남아국가간의 상호협력증대와 투자유치경쟁, 국제분업체제의 변화에 따른 인도네시아 무역구조의 변화 등 많은 요인들이 화교들의 경제적 능력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질서체제이전의 화교정책은 화교들의 경제력과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주목적을 두고 있었고, 이 정책은 실패를 기득했다. 그러나 충분한 실패의 경험위에 수립되었던 신질서의 화교정책은 화교사회의 관건인 경제적 활동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대신, 화교들의 정치적, 문화적 권리 를 빼앗았다. 이는 국가, 화교, 토착사회 모두에게 비교적 광고루 들판 실을 가져다 주었다. 신질서의 화교정책은 이 삼자들에게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복리를 적절히 배합하여 공급함으로써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균형점’(equilibrium)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⁴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화교문제는 당분간 인도네시아사회를 괴롭히는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남아 있을 것이다. 화교에 대한 탄압, 테러, 차별은 비록 그 강도가 약해지고 범도가 줄어 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화교문제의 해소는 화교들이 토착사회에 완전히 동화되거나 인도네시아의 정치다원주의가 활짝 꽂힐 때 까지 기대할 수 없고, 또한 완전한 동화와 완벽한 다원주의도 지금으로서는 요원한 하나의 이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난 30여년간 경제적 성공과 정치적 안정을 통해 국가가 확보한 자신감과 화교사회가 보여준 급격한 동화는 그 가능성은 어느정도 예견하고 있다.

⁴ 이러한 필자의 결론은 수하르토정권의 화교정책이 ‘합리적’이고 정책결과에 있어 ‘합복적’이었을 뿐만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정당한 정책이라고 필자가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 질 수 있다. 그러나 정책합리성은 가치판단과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도 인도네시아의 화교정책이 화교들의 인권과 문화적 권리를 탄압하고 박탈한 비인도적이고 반유리적인 국가테리였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해 준 박사명교수와 오명석박사의 비평에 감사한다.

〈 참 고 문 헌 〉

신유환

1990 “노동의 죄악성과 국가의 억압적 통제: 수하르또 체제하의 인도네시아 사례 연구,” 『아세아문화』(한림대 아세아문화연구소), 제6호.

1993 “현대적 형태의 ‘원시축적’: 인도네시아 재벌형성에 관한 일 연구,”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외교안보연구원. 12월 6일.

Anderson, Benedict R. O'G

1972 “The Idea of Power in Javanese Culture,” in Claire Holt, ed., *Culture and Politics in Indonesia*. Ithaca: Cornell Univ. Press.

1983 “Old State, New Society: Indonesia's New Order in Comparative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Asian Studies* 42.

Anspach, Ralph

1969 “Indonesia,” in Frank H. Golay, Ralph Anspach, M. Ruth Pfanner, and Eliezer B. Ayal, eds., *Underdevelopment and Economic Nationalism in Southeast Asia*. Ithaca: Cornell Univ. Press.

Awanohera, Susumu

1984 “The Perennial Problem,” *Far Eastern Economic Review*, September 6.

Arndt, H. W.

1978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17. Biro Pusat Statisti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1992 *Statistik Indonesia 1991* (Statistical Yearbook of Indonesia 1991). Jakarta.

Block, Fred

1987 “The Ruling Class Does Not Rule,” *Socialist Review* 33 (May-June).

Booth, Anne

1981 “The Indonesian Economy since the Mid-Sixties,” in Booth and Peter McCawley, eds., *The Indonesian Economy during the Soeharto Era*. Kuala Lumpur: Oxford Univ. Press.

Clad, James

1989 *Behind the Myth: Business, Money and Power in Southeast Asia*. London: Grafton.

Coppel, Charles A.

1976 “Patterns of Chinese Political Activity in Indonesia,” in J.A.C. Mackie, ed., *The Chinese in Indonesia*. Honolulu, Hawaii: The Univ. Press of Hawaii.

1983 *Indonesian Chinese in Crisis*. Kuala Lumpur: Oxford Univ. Press.

Crouch, Harold

1988 *The Army and Politics in Indonesia*. Revised ed. Ithaca: Cornell Univ. Press.

Emmerson, Donald K.

- 1978 "The Bureaucracy in Political Context: Weakness in Strength," in Karl Jackson and Lucian Pye, eds., *Political Power and Communications in Indonesia*.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Evans, Peter
 1979 *Dependent Development: The Alliance of Multinational, State, and Local Capital in Brazil*.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Furnivall, J. S.
 1967 *Netherlands India: A Study of Plur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Geertz, Clifford
 1960 *The Religion of Java*. Glencoe, N.Y.: Free Press.
- Gourevitch, Peter
 1985 *Politics in Hard Times: Comparative Responses to International Crises*. Ithaca: Cornell Univ. Press.
- Heidhues, Mary F. Somers
 1974 *Southeast Asia's Chinese Minorities*. Melbourne: Longman; 한글 번역판으로 『동남아시아의 華僑』(박은경 역, 형설출판사, 1993)가 있다.
- 1992 *Bangka Tin and Mentok Pepper: Chinese Settlement on an Indonesian Island*.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Hill, Hall
 1988 *Foreign Investment and Industrialization in Indonesia*. Singapore: Oxford Univ. Press.
- Kwik Kian Gie
 1981 "Pengusaha Kuat Yang Harus Membantu Yang Lemah" (큰 기업가들은 중소기업 가들을 도와야 한다), *Kompas*. 22 Januari.
- Liddle, R. William
 1987 "The Politics of Shared Growth," *Comparative Politics* 19.
- McDonald, Hamish
 1980 *Suharto's Indonesia*. Melbourne: Fontana/Collins.
- MacIntyre, Andrew
 1990 *Business and Politics in Indonesia*. North Sydney: Allen & Unwin.
- Mackie, J. A. C.
 1974 *Kofrontasi: The Indonesia-Malaysia Dispute, 1963-1966*. London: Oxford Univ. Press.
- O'Donnell, Guillermo A.
 1973 *Modernization and Bureaucratic-Authoritarianism: Studies on South American Politics*.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Oetomo, Dédé

- 1984 "The Chinese of Pasuruan: A Study of Language and Identity in a Minority Community in Transition." Ph.D. diss. Cornell Univ.

Panglaykim

- 1984 *Bisnis Keluarga: Perkembangan dan Dampaknya* (가족기업: 성장과 그 영향). Yogyakarta, Indonesia: Andi Offset.

Prijono, Onny

- 1986 *Hasil Survei mengenai Kerukunan Hubungan antar Kelompok Etnik* (종족집단 간 관계의 조화에 대한 조사결과). 미출판보고서. Jakarta: Yayasan Prasetya Mulya.

Purcell, Victor

- 1965 *The Chinese in Southeast Asia*. 2nd. ed. London: Oxford Univ. Press.

Redding, S. Gordon

- 1990 *The Spirit of Chinese Capitalism*. Berlin and New York: de Gruyter.

Robison, Richard

- 1977 "Capitalism and the Bureaucratic State in Indonesia, 1965-1975." Ph.D. diss., Univ. of Sydney.

- 1978 "Toward a Class Analysis of the Indonesian Military Bureaucratic States." *Indonesia*, no. 25.

- 1982 "The Licm Group: From Indonesia to International Corporate Operations in Asia: Some Theoretical Considerations." Mimeo.

- 1986 *Indonesia: The Rise of Capital*. North Sydney: Allen & Unwin.

Rogowski, Ronald

- 1989 *Commerce and Coalitions: How Trade Affects Domestic Political Alignment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Saul, John

- 1974 "The State in Postcolonial Societies: Tanzania," in Saul and John Saville, eds., *The Socialist Register 1974*.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Shin, Yoon Hwan

- 1989 "Demystifying the Capitalist State: Political Patronage, Bureaucratic Interests, and Capitalists-in-Formation in Soeharto's Indonesia." Ph.D. diss. Yale Univ.

- 1991 "The Role of Elites in Creating Capitalist Hegemony in Post-Oil Boom Indonesia," in *Indonesia: The Role of the Indonesian Chinese in Shaping Modern Indonesian Life*. Proceedings of a symposium held at Cornell Univ., July 13-15, 1990. Ithaca: Cornell Southeast Asia Program.

Siswono Yudo Husodo

- 1985 *Warga Baru: Kasus Cina di Indonesia* (신시민: 인도네시아 화교의 경우). Jakarta: Lembaga Penerbitan Yayasan Padamu Negeri.

- Skinner, G. William
 1963 "The Chinese Minority," in Ruth T. McVey, ed., *Indonesia*. New Haven: Southeast Asia Studies, Yale Univ.
- Skocpol, Theda
 1979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Suryadinata, Leo
 1985 *China and The ASEAN States: The Ethnic Chinese Dimension*. Singapore: Singapore Univ. Press.
- 1986 *Pribumi Indonesians, the Chinese Minority and China: A Survey of Perceptions and Policies*. 2nd ed. Singapore: Heinemann.
- 1990 *Kebudayaan Minoritas Tionghoa di Indonesia* (인도네시아의 화교문화). Trans. Dédé Oetomo. Jakarta: Gramedia.
- Sutter, John O.
 1959 *Indonesianisation: Politics in a Changing Economy, 1940-1955*. 4 vols. Data Paper no. 36. Ithaca: Department of Far Eastern Studies, Cornell Univ.
- Tan, Mely G.
 1991 "The Social and Cultural Dimensions of the Role of Ethnic Chinese in Indonesian Society," in *Indonesia: The Role of the Indonesian Chinese in Shaping Modern Indonesian Life*. Proceedings of a symposium held at Cornell University, July 13-15, 1990. Ithaca: Cornell Southeast Asia Program.
- Tan, T. K.
 1967 "Sukarnian Economics," in Tan, ed., *Sukarno's Guided Indonesia*. Brisbane, Australia: The Jacaranda Press.
- Tilly, Charles
 1990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0*. Cambridge: Basil Blackwell.
- Wallerstein, Immanuel
 1974 *The Modern World-System*. New York: Academic Press.
- Wang Gungwu
 1991 *China and the Chinese Overseas*. Singapore: Times Academic Press.
- Williams, Lea
 1952 "Chinese Entrepreneurs in Indonesia," *Explorations in Entrepreneurial History* 5, 1.
- Willmott, Donald E.
 1961 *The National Status of the Chinese in Indonesia*. Ithaca: Cornell Univ. Modern Indonesia Project.
- Wu Yuan Li and Wu Chun-hsi

1980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The Chinese Dimension*.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Yoshihara Kunio

1988 *The Rise of Irsatz Capitalism in Southeast Asia*. Singapore: Oxford Univ. Press.

Identity Crisis, Political Exclusion, and Economic Privileges of the Ethnic Chinese in Soeharto's Indonesia

Yoonhwan Shin

This study describes and analyzes dramatic changes the ethnic Chinese of Indonesia have undergone under the Soeharto rule. The changes are conspicuous by contradictory but simultaneous development between their sociopolitical status and their economic position.

Since the end of the 1960s, the ethnic Chinese society of Indonesia has lost much of its communal characters and Chinese identity. During the same time span, the Chinese minority have been under so strong pressure and repression to assimilate into the indigenous society that they are by now deprived of almost all political and cultural rights as Indonesian citizen as well as ethnic minority. Economically, however, the position of most Chinese have become much stronger than ever; The last quarter century has witnessed the emergence of a new capitalist class, which is composed mainly of ethnic Chinese.

The othe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have caused such changes. I put forward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highlights the positions and interests of major actors in the Chinese question and how they have collided and reconciled with one another to lead the Chinese where they now stand. I include three major actors in the framework and show what actions and reactions each actor has taken and how they have interacted to deal with various issues concerning the Chinese problem: the world capitalist system, the Indonesian state, and civil, especially indigenous, society. In so doing, I do not disregard how the ethnic Chinese themselves respond to those demands, supports, and pressures. To make my analysis substantial, I also attempt to conceptualize such controversial concepts as ethnic Chinese, world system, state, and civil society.

신윤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1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Tel : 705-8392(O), 504-3538(H)